

지자체, 사활 건 인구 늘리기 정책

화순군, 월 1만원 임대 아파트
강진군, 농촌 빈집 고쳐 임대
아동 수당 7년간 월 60만원도
순천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장흥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역 특성 맞는 성장동력 관건

사상 최악의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자치단체들이 최근 '1만원 아파트'와 '다둥이 역대 출산 장려금' 등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소모적인 '인구 뺑기' 경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은 대도시의 집값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최근 빈집 '전대' (재임대) 방식의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화순군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1만원의 월세만 받기로 했고, 강진군은 농촌 빈집을 고쳐주고 이를 저렴한 값에 도시민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1만원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남 시·군과 강원,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가 화순군에 잇따랐다. 나주시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아파트 재임대 방식을 빌린 보금자리 정책을 선보일 방침이다.

화순군이 월세 1만원을 내건 아파트는 이달 초까지 50명 뽑는 1차 공모에 486명의 청년과 20쌍의 신혼부부 등 506명이 몰려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되면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 전세 보증금 4800만원을 내지 않고, 월세 1만원과 관리비·공과금만 부담하며 최장 6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화순군은 오는 6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를 받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이후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빈집 소유주가 군에 무상 임대하는 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공사 지원금을 70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진에 있는 빈집은 모두 547가구로, 올해 강진군은 100가구를 고칠 계획을 세웠다. 집주인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 대신 7년 동안은 세입자에게 거의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곡성군이 폐교를 개조해 만든 청년 거주시설에는 지난해 42개 기업 187명이 다녀가며 일과 휴가



화순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내건 '월세 1만원 임대 아파트'에 대한 50명의 당첨자를 다음 달 1일 발표하고 오는 7월 입주를 진행한다. 화순읍의 1만원 임대 아파트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행정안전부 지정 전남 '인구감소지역'

를 동시에 즐기는 '위케이션' 명소의 생활인구 유입 가능성을 봤다.

이 밖에도 전남 자치단체들은 파격적인 수당을 내세우며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었다.

강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강진에서 6년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가 7년 동안 1억51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아동 1인당 7년 동안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7월부터 전남 최초로 모든 산모에게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의 산후 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준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결

혼장려금 500만원 지급(2년 분할)을 이어오고 있으며, 데이트 비용 100만원을 주는 등 결혼 지원에 열심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로,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16개 군이 포함됐다. 지난해 전남 11개 지역에서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개 시·군에서는 5년 연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전남가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자치단체들이 제 살 깎으며 인구 늘리기 대책을 짜내고 있지만, 일자리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복지 대책은 단발적 유입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교육(-4300명)과 직업(-2200명) 등의 사유로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주거 때문에 순유입한 인구는 400명에 불과했다.

전남지역 모 자치단체 인구 담당 직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인구 유입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책이기도 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김병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1만원 임대 아파트와 같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수요·공급 예측이 어려운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누리호 오늘 우주로

오후 6시 24분 발사 예정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한 세번째 여정을 시작한다. 누리호는 24일 오후 6시 24분 우주로 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23일 오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을 출발해 1.8km를 이동, 1시간 34분 후인 오전 8시 54분께 발사대에 도착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누리호의 하부는 4개의 고리가 달린 지상고정장치(VHD)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된다. 이 장치는 누리호 발사 직전 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달하면 고정을 해제한다.

이후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밀리칼 연결과 추진제가 새지 않음지 확인하는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일인 24일 오후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누리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발사 가능 시간,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사는 예정대로 24일 오후 6시 24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기체에 문제가 없는 이상 발사에 유일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발사 당일 기상조건 전망은 양호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사대가 있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날씨의 발사 당일(24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각각 16도와 21도로 예보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23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 /연합뉴스

다.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지만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수확률도 0~20%에 그치고, 바람 역시 1~4%로 잔잔하겠다.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여야 한다. 구름이나 비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지상풍은 평균 풍속이 15%, 순간최대풍속이 21%를 넘으면 안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국서 네이버 접속 불능...한국 "확인중"·중국 "모른다"

외교부는 23일 중국에서 한국 포털사이트 다우에 이어 네이버도 현지 접속이 차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관 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부도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는 "중국 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접속이 원활치 않은 상태가 맞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차단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인지,

단순히 기술적 오류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전남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네이버 접속 불능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안 되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지적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며 "중국의 해당 부서에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 소지역주의 ▶2면

방치된 광주 테마 마을에 방문객들 실망 ▶6면

U-20 월드컵 축구, 최강 프랑스 꺾었다 ▶18면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